

금융기관 새해포부를 듣는다 ⑨ 농업중앙회 포천시지부



황성택 농업중앙회 포천시지부장

農民위한 지원대책 세워야
예금 1조2천억원 순익 80억원

“친환경농법으로 농업경쟁력강화시켜야 산다”

자본은행은 농협이다. 국민은행 수익의 80%는 외국자본이지만 농협은 오직 민족자본도 종이다. 지역구심체 역할을 하는 지역, 생활, 민족고유은행이 바로 농협이다.

전국 5천여개의 점포를 자랑하고 있는 농협은 총자산이 7만7천여명이며 예금고는 200조원 이상이 된다. 국내최대 예금고 보유은행을 국민은행으로 발표하는데 국민은행의 예금고 150조원이다. 농협중앙회와 회원농협을 합해 200조원이상이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제1금융권이고 회원농협은 제2금융권으로 예금고를 발표할때는 제1금융권만 발표하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1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로 농협의 예금규모가 크다.

농협을 제2의 행정조직 혹은 정부조직이라고 한다. 각 읍면 단위로 2~3개의 점포가 개설되어 있다. 다른 시중은행은 각 읍면단위에 점포를 신설할 수 없다.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협은 민족은행이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각 읍면에 점포를 마련한다.

또 시중은행 예금은 당일 서울로 다 빠져 나간다. 그러나 농협의 예금은 지역에 남아 지역경제활성화에 걸인차 역할을 한다. 농협을 이용하고 예금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농협중앙회는 은행업무는 물론 농산물 판매사업, 농민보험사업, 농산물유통사업, 장례사업, 종합금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2년1월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장으로 취임한 황 지부장은 계속해서 농협중앙회의 꿈과 비전을 소개한다.

포천은 지역이 낙후되어 있었던 것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교통망을 잘 개발하면 충분히 개발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어 토지와 물이 풍부하여 환경공장을 유치하고 주거단지를 개발해 나가면 충분히 발전된 도시로 변화될 것이다.

농민들은 근교농업으로 포도와 사과, 채소류 등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산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천은 특히 전국에서 손꼽히는 축산의 고장이다. 따라서 농·도 복합도시로의 발전 가

능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3년째 근무하면서 황 지부장이 추진한 주요성과로는 예금이 있어 매년 15%이상 성장시키고 대출도 매년 20%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경영노하우다. 황 지부장은 조직은 인격결합체로서 직원상호간의 인화단결을 최상의 목표로 포천농협의 비전을 제시하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각자의 특성을 살려 인격구체체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람의 능력은 2~3배 이상 높아진다.

2004년도에는 개성인삼조합이 노사간의 갈등으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농협과 축협은 모두 흑자경영을 했다. 이것은 화합, 단결, 융화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평소 황 지부장은 “자신의 건강이나 외모, 내적인 면을 가꾸지 못하는 사람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자기역할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본인의 체력관리는 물론 외모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요즘에도 사람들이 40대 로 바꿔 감사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황 지부장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를 평소 좌우명으로 삼아 건강을 지키는 데도 노력이 없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포천시 농협 조합원은 물론 농민들에게 황 지부장은 “우리나라가 현재 20개국과 FTA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상이 되면 농촌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으로 협상국에서 들어올 수 없는 과일이나 채소를 환경친화적인 농법으로 재배하여 농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황 지부장은 정부가 지난 30년동안 공업합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 이제 농촌사람운동을 펼쳐 농민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⑨

(주)명훈

건축자재용 타일본드 전문 생산



대표이사 이상훈

친환경적 소재사용으로 현대 건축물에도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현대 건축물의 양상에 따라 개발되어온 우수한 건축자재용 타일본드, 비파재, 방수재 등을 생산하며 찾는 고객에게 공기단축과 경비절감에 일익을 담당하며 접착제 생산 업체 최고봉을 자랑하고 있는 주)명훈(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149-2 대표이사:이상훈)

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주)명훈은 지난 2003년 KS ISO 인증획득업체로 선정되는 영예와 우리자본과 기술로 세계시장을 향해 도전하는 미래지향적인 업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든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유가에 매우 민감하며 불황타격을 위해서는 양질의 제품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며 “생산부, 관리부, 영업부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뒷받침은 우수한 인력이 밀려들어 있으며 TQM 도입, 고객만족 성취, 원가관리 철저한 경영방침아래 승진수법하는 임직원들이 있기에 앞으로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국내타일용 접착제를 보급하는 보람에 선두주자라는 명훈의 CERA SET MH 3000(내장타일 강력 접착제)은 내수성 공중합수지를 기재로 하여 제조된 유기질 내장타일용 접착제로서 DRY_WALL면인 주방, 욕실 등 각종 내장면 벽에 타일을 강력하게 접착시켜주는 내수성, 내열성,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이다.

CERA SET MH 7000(최고급 내장타일 강력 접착제(대형타일))은 특수 공중합 수지를 바

우리자본과 기술로 세계시장을 향해
도전하는 미래지향적인 업체로 부상

주)명훈에서 연구, 생산되고 있는 Paste상의 세라믹 본드는 내열성과 내수성이 우수하여 주방 및 욕실벽, 실내장식용 합판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최적의 시공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주)명훈은 8년 전 군내면 직두리에서 독특한 기술력과 최고의 제품만을 생산한다는 신념과 고집아래 설립되어 친환경적인 접착제 생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도전, 창조, 실천”이란 사훈아래 16명의 임직원들은 양질의 제품생산과 체계적인 관리로 내실 있는 경영을 꾀하며 경쟁력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완벽한 제품만을 추구하는 주)명훈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품질제일주의를 지향하며 현재 전국에 5개의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국내최고의 접착제를 보급하고자 신소재개발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며 수도권을 제외하고도 부산, 전주, 강원 지역 등 국내 접착제 시장에 50%정도 점유율을 보이며 꾸준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주)명훈은 기술개발을 최고의 이념으로 고객

인대로 하여 제조된 유기질 고급타일용 접착제로서 지속적 내수 접착강도를 가지며 신축 대응성과 장기 접착강도, 탁소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대형타일에도 적격한 최고급 타일 접착제다. MOLDALIN MH 3000(몰탈 강력 접착제)은 E.A.V 고분자 에멀전을 주성분으로 하여 특수 첨가제를 배합한 것으로 건축, 토목용 등 용도가 다양하며 내, 외벽면, 바닥면의 기초사용부터 특수바탕에 몰탈을 완전히 접착시키는 초강력 몰탈 접착제다.

Ray Line MH 1000(아크릴 수지계 PVC 바닥재용 접착제)는 아크릴 수지를 기재로 한 페이스트상의 바닥재용 접착제로서 탁소성, 작업성이 우수한 수성타일의 바닥재용 접착제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 바로잡습니다
본지 제299호 6면 우리지역사업소 인물사진 설명 '대표 김진구'를 '대표 최인환'으로 바로잡습니다.



현대 건축물의 양상에 따라 개발되어온 우수한 건축자재용 타일본드, 비파재, 방수재 등을 생산하며 찾는 고객에게 공기단축과 경비절감에 일익을 담당하며 접착제생산 업체 최고봉을 자랑하고 있는 주)명훈

포천시 일부지역 광역 상수도 공급 시작

상수도 공급지역 톤당 130원의 물이용부담금 부과

포천시의 현안사항이던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해온 포천시지역 관로 공사가 지난 21일 일부 구간 완료됨에 따라 소흘읍과 가산면, 선단동, 설운동, 풍교동 지역에 광역(팔당권) 상수도 공급이 시작됐다.

또 문화재 발굴조사 관계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군내면

용정리 구간이 금년 말경에 완료되면 군내면과 신북면, 영중면, 일동면, 그리고 포천동까지 광역급수지역이 확대되면서 포천시의 물 부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전망이다.

한편 포천시는 이번 광역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는 5월부터 상수도 요금 외에 톤당 130원씩의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고 안내

했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포천시는 이 부담금이 규제 받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수질 개선사업 등에 쓰여지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

를 당부했다.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되면 가정에서 30톤을 사용하는 경우 납부금액이 기존의 25,570원에서 29,470원으로 3,900원 증가하며, 대중목욕탕에서 100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122,170원에서 135,170원으로 13,000원이 늘어난다.

포천시는 2003년 시 승격 이후 인구증가와 미개발 지역에 대한 대단위 개발계획 등으로 인해 상수도 수요량이 급증해 왔으며 이번 광역 상수도 개통으로 수돗물의 보다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졌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협의회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시달 및 집행차단 대책

포천시는 지난 17일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에서 방역협의위원과 읍·면 산업담당, 기타 방역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구제역 가축방역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구제역 방역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협의회에서 포천시는 참석자들에게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시달했으며, 아울러 소 부투설라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 시 구제적인 질병 차단 대책에 관해 협의했다.

포천시는 또 예방위주의 가축 자율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양축농가를 상대로 ▶책임방역에 철저 추진 ▶구제역 신고체계 확립 ▶외국인 연수생 관리 등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당부했다.

포천시는 금년 3월부터 5월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구제역 대책상황실(☎1588-4060)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읍·동별 책임예찰요원을 편성해 주1회 이상 모든 농가를 예찰하는 등, 가축 전염병 방역에 매진하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공동주택 기준시가란?

□ 공동주택 기준시가

○ 아파트 및 전용면적 165㎡(50평) 이상인 연립주택(이하 아파트 등)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정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 아파트가격이 연중에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액의 차이가 커지면 수시로 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기준시가와 세금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율해부터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도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 아파트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아 불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신고기한에 실제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세무관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실가신고의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
○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행 방범을 사용하는 경우
○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주택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위의 경우에 세무관서에서는 기준시가를 신고된 실거래가격의 검증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
- 아파트 등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시가로 과세함이 원칙이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공동주택 기준시가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전선다발을 지게차로 운반 중 전도



재해발생 상황도

운전자격자가 운반 작업을 하여야 하나 무면허자가 지게차 운전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지게차에 안전벨트가 미설치된 상태로 지게차 전도 시 운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셋째 운반화물의 종류에 따른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 운반 시 작업장의 넓이 및 지형, 화물의 종류(전선 다발 등) 및 형상에 적합한 작업 계획을 작성하고 무리한 화물적재 및 필요이상으로 지게차 포크가 상승한 상태에서 이동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운전자가 운반 작업을 하여야 하나 무면허자가 지게차 운전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지게차에 안전벨트가 미설치된 상태로 지게차 전도 시 운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셋째 운반화물의 종류에 따른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 운반 시 작업장의 넓이 및 지형, 화물의 종류(전선 다발 등) 및 형상에 적합한 작업 계획을 작성하고 무리한 화물적재 및 필요이상으로 지게차 포크가 상승한 상태에서 이동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031)826-6091